

대승적 결단이라지만... '미완의 해결안' 여전히 부담

강제징용 배상 역사·해법과 전망

징용 피해인원 780만여명 추산

日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입장

尹-기시다 선언 나오나 촉각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해법을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오랫동안 한일관계를 뒤흔든 현안이었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과 한·일간 해법,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80여년 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780만명 추산=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38년 4월부터 국가총동원령을 발령해 조선인들을 전장터와 군수업체 등지로 강제 동원했다.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약 780만명으로 추산된다.

해방 이후 정부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 논의에 착수했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

협정문에는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를 무상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2조 1항에는 '계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도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해 왔다.

또한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단락됐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한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일본 기업 중 한국에 자사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11월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숫자로 치면 피해자 기준 15명(원고 기준 14명)이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미완의 해결안' 여전히 부담=정부는 6일 발표한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통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없는 '반쪽' 해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단 마련 방식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자발적 기여를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 기업, 특히 두 피고기업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해법 발표에 나선 것이어서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피고기업 돈이 아닌 국내 기업 돈으로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애초 시작점이 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기시다 선언 나오나=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배상안을 정부가 이날 발표하면서 양국 정상 간 서를 외교 복원도 가시권에 들면 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하순께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중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갖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양 정상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한 차례 양자 회담을 했으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이었어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 그쳤다.

이번에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될 경우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포함한 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윤석열-기시다 선언'이 실제 도출된다면 양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전대 ARS 투표 시작...내일 결과 발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6일 선거인단 대상 ARS 투표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이틀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83만7236명) 중 모바일 투표 불참자를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4~5일 진행된 모바일투표에서는 전체 선거인단의 47.51%인 39만880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6292-4729' 번호로 오는 전화를 수신한 뒤 안내

에 따라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2명, 청년최고위원 1명을 선출해 투표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했다.

투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선거 결과가 발표된다.

당권주자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 경우, 9일 일대일 토론을 하며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ARS 투표를 거쳐 12일 당 대표를 확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42.9%...3주 연속 40%대

리얼미터 조사...2.5%p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소폭 오르며 3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5%포인트(p) 상승한 42.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3.8%p 하락한 53.2%였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서울(5.4%p ↑), 대구·경북(5.0%p ↑), 부산·울산·경남(4.4%p ↑), 연령대별로 20대(7.8%p ↑), 60대(3.9%p ↑), 40

대(3.8%p ↑)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1.5%p ↑)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1%p 오른 44.3%, 더불어민주당은 3.2%p 내린 40.7%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었다.

정의당은 0.1%p 오른 2.8%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0.6%p 상승한 10.0%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핵 탑재 가능' 美 B-52H 폭격기 서해 전개...“압도적 능력”

한미연합연습 앞두고

미국 전략자산 속속 한국행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이 또 한 번에 전개됐다.

6일 군에 따르면 미국 장거리 폭격기 B-52H(스트래토포트리스)가 이날 서해 상공에서 한국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훈련을 했다.

군은 훈련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통상

적으로 미국 폭격기가 전개될 때와 유사하게 한미 항공기가 편대비행 하면서 폭격기를 호위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양국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프리덤실드 연습 개시에 맞춰 시행돼 의미를 더한다”며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와 관련해 북한이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논의한 대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임과 동시에 빈도·강도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의 이행이라고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